

보도시점 (온라인) 2024. 6. 30.(일) 12:00
(지 면) 2024. 7. 1.(월) 조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6.28.) 심의·확정

-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재난안전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 ▲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 * ▲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1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잠재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후위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하고, IoT센서를 활용하여 지하차도 침수상황을 주변지역에 전달하는 ‘긴급 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 추진, 기상 관측·예측 고도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밀한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또한,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화재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 2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 AI,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요일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예측하여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고,
- AI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및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전략 3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 지역·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기관 간 소통 증진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한다.
-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역량을 강화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에 힘쓴다.
-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닥터헬기 확대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경찰-소방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및 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전략 4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 재난피해자와 피해자가족 지원 전담기구로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 피해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활성화 등 종합복구를 추진하고 재난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 취약자의 119안심콜 가입 확대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5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민·관이 협력해 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국민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환경변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또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사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 등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유도하며, 읍면동 협의체 확대를 통한 민·관 협업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 주요 선종(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의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 관리비용 등 안전투자 세부내역 공시

□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최일선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민 장관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재난에 대해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며,

○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책임자	과 장	고응석 (044-205-4160)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044-205-4169)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기본방향



5대 전략 및 15개 추진과제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 신속 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새로운 위험에 대한 재난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의 재난 예방·대비 체계 혁신	지역·현장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책임 강화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강화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재난안전정보 통합관리	현장 대응 기관 간 조정·지원기능 강화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AI·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재난상황 관리체계 정립	현장감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질 개선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실효성 제고	민·관 협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